

이정미 “김동연, 최저임금 흔들면 거취문제 공식 제기”

“X맨 의심...정부 정책 근간만 흔들려” 비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고용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을 지목한 데 대해 "기업의 민원창구를 넘어 이제 X맨이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총리의 시정과 기업 타령에 정부 정책의 근간만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

들과 만나 8월 고용부진과 관련 '최저임금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고용부진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을 단정적으로 지목한 근거가 없다는 게 중론인데, 시간이 날 때마다 최저임금만 골라 때리면서 국민에게는 혼란을 주고 자유한국당에는 기쁨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노동시간 단축은 그 대상이 300인 기업으로 제한돼 있고, 그나마 처벌이 유예돼 8월 고용

지표에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난데없이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를 들고 나왔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의당은 김 부총리의 정부 흔들기가 계속된다면 거취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결전하며 국회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등 정국회의 일정을 연기 요청한 데 대해 "방북도 싫다, '국회도 열지 말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지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시진핑 “한두번 회담으로 북핵 문제 해결 못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한두 번 회담으로 수십년 간 지속돼 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행사 도중 한반도 정세와 연관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시 주석은 또 "북핵 문제와 밀접

한 관계가 있는 국가는 북한, 한국, 미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들 3개 국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중국 전용기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목적으로 한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이 국제 회의 공개석상에서 사전에 준비된 연설문을 읽는 것 외에 돌발 질문에 답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 언론은 시 주석이 이날 한반도 일대일로 구상 등에 대해 질문에 답변했다고만 보도하고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한편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이날 '국동지역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동북아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자'는 주제로 연설했다고 전했다.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 1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이 북측 수석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기대감’ 文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

지난주비 0.2%p ↑ 53.7%...5주 연속 하락세 멈춰



식과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과 경제협력 관련 보도가 증가했던 지난 12일에는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발표와 일부 야당의 소득주도성장 폐기 공세가 잇따랐음에도 56%로 반등해 55%선을 회복했다.

세부적으로 충청과 서울, 대구·경북, 50대와 20대에서 지지율이 내려갔으나, 호남과 경기·인천, 30대와 60대 이상, 보수층과 진보층, 중도층에서도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0.3%p 오른 40.7%를 기록해 지난 2주간의 내림세를 멈췄다. 자유한국당은 0.2%p 오른 19.7%로 회복했고, 정의당은 0.9%p 오른 10.8%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은 0.7%p 떨어진 6.8%, 민주평화당은 0.6%p 하락해 2.1%였다.

이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리얼미터는 지난 12일 실시한 종부세 강화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 (매우 찬성 32.5%, 찬성하는 편 23.9%)는 응답이 56.4%로 절반을 넘었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 11.7%, 반대하는 편 19.0%)는 응답이 30.7%였다.

이번 주중집계는 지난 10~12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8434명에게 통화를 시도, 최종 1502명이 답해 8.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지난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학규 “임종석, 비서실장 자기정치 안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3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 공개 초청 과정과 관련해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손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도와 대통령의 일이 잘 되도록 자신은 숨어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임 실장이 공개 초청 거절 뒤 페이스북을 통해 '꽃합배

를 거론하며 야당 대표들을 우회 비판한 데 대해 "기자회견에서 나오고 SNS로 꽃합배가 어찌고, 비서실장으로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논의를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뒤로 미루기로 한 국회 합의 직후 청와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서는 "비준동의를 실제로 받을 생각이 아니라 '여야당은 뭘 하느냐'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꼬

집었다.

손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며 "그것을 위해 여야 간 정쟁을 자제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정쟁을 촉발하는 이런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재차 질타했다.

한편 그는 비준동의안에 첨부된 판문점 선언 비준추계에 대해 "(판문점 선언 이행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추가로 2988억원이 들어가고 전체 4712억원"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에 앞으로 이뤄지면 몇 천억대 가지고 되겠다"라고 짚었다.

뉴스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림로 340번안길 5

광산구